

## 한 사상과 간호

김문실\* · 고효정\*\* · 김애경\*\*\* · 이옥자\*\*\*\*

### I. 서 론

현대인간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산업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분야에 심오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져야 하므로 총체적 인간으로서의 조화성이나 전일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이 탈인간화,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개인은 물론 사회속에서 많은 문제점을 생기게 한다. 따라서 인간의 전체성을 지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20세기에 들면서 간호학이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시작 하면서 많은 간호학자들이 인간의 신체, 사회, 심리적 욕구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인간중심의 간호를 강조하고 간호전문직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별적인 간호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논리실증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간호의 과학성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예술성을 등한시 하는 경향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김문실 외, 1990).

간호 대상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욕구가 개별적 일 뿐 아니라 경험에 따라 같은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다르며 의미해석도 다양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인과관계로서 대상자를 이해하거나 그 사람의 가치 신념등을 고려하

지 않고 제공되는 간호만으로는 대상자의 욕구를 만족 시키기 어려우므로 대상자의 가치, 신념, 행동을 이끄는 사상적인 배경을 고려하는 간호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어느나라든지 그들의 가치, 신념, 행동을 이끄는 고유한 사상이 있는데 김상일(1986), 이을호(1986), 최민홍(1987)은 한민족의 고유한 사상을 한사상이라 하고 있다. 한사상은 외래사상이 들어오기전에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사상으로 사상적 기본은 귀일논리(歸一論理)로 대표된다. 즉 전체적인 큰 하나로 돌아감으로서 극과 극이 형성되지 않고 대립이 없다는 것이다. 한사상은 전체론적 입장에서 인간을 지각하며 기계론적 부분의 집합으로서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연관성에서 부분까지 포함하여 중요하게 다룬다. 또한 사물의 극과 극의 양립을 허용하지 않고 통일, 조화를 강조하여 자기자체안에서 조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및 더 나아가서 세계속에서의 조화를 강조한다. “한”을 근거로 하는 한 민족의 도덕사상은 경천사상, 충효사상, 인의사상(仁義思想), 정(情), 민본주의 사상, 자유, 평등사상, 민족 주체사상을 나타낸다.

이처럼 외래사상에 오염되지 않은 한민족의 고유한 철학을 나타내는 한사상에는 현대간호가 지향하고 있는 간호의 개념적 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사상에서의 인간의 전체성, 전일성과 인간과 환경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 계명대의대 간호학과  
\*\*\* 영동전문대학  
\*\*\*\* 부여 성요셉병원

과의 전체성, 조화성을 간호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현대간호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일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 민족의 고유한 사상인 한사상의 고찰을 통해 한사상이 현대간호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한사상이 어떻게 한국 환자 간호를 위한 개념적 틀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 본 론

### A. 한사상의 배경

#### 1. 한의 의미

각민족은 그들의 가치, 신념, 행동을 이끄는 고유한 사상이 있다. 한사상은 외래사상이 들어오기전에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사상을 말한다. 즉 우리 한국인도 유교, 불교, 기독교가 아닌 고유한 철학적 사상이 있는데 이것이 한사상이다. 그러므로 한사상은 한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파악하고, 삶의 의미, 가치의 표준, 힘과 꿈을 주는 사상을 의미하며 철학, 종교, 윤리, 도덕, 그밖의 정치, 경제의 모든면에 사상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것이 도(道)사상, 인도를 대표하는 것이 불교사상이라면, 한국을 대표하는 것은 한사상이다(김상일, 1986 ; 최민홍, 1970).

한사상의 유래를 더듬어 보면, 기원후 10세기 초엽에 만들어진 구당서열전의 고구려 사람들의 신앙에서 가한신(可汗神)이 나오며, 고구려 왕국을 세운 임금을 모시고 제사를 지낸것으로 생각된다. “가한”은 몽고말 Khan을 한자로 적은 것인데 이말은 우랄 알타이어이며 알타이어족이라 함은 몽고족, 만주족, 동이족(東夷族)을 일컫는 것으로 특히 동이족은 고조선을 세운 한민족의 시조이다. Khan은 Kan, Han으로 한(翰 : 글한), 한(漢 : 한수한), 한(韓 : 한나라한), 한(汗 : 땀한) 등으로 옮겨 썼고, 알타이어족들이 쓰고 있었던 이 “한” 뜻의 이해를 돕기위해 편리상 두가지 즉 심오성과 일반성의 의미로 대분하여 설명할 수가 있다. 전자는 철학이나 종교의 깊은 사상적 배경으로 사용되었던 반면에 후자는 크다, 높다, 우두머리다, 전체적 큰 하나다라는 등의 일반적인 뜻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우종모 : 1986)

역사적으로 보아 우리 민족을 한(韓)족으로 해석한 사람은 다산 정약용이었다. 그는 중국에서 건너온 종족

이 아닌 토착종족이라고 하면서 한족의 긍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다시 철학적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철학사상을 “한”이라 정의한 분은 주시경이었다. 주시경은 한글학자로서, 구한말의 무너져 가는 민족의 정체성(identity)을 되찾기 위해서 민족의 고유한 얼을 “한”이라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다산 정약용과 주시경은 “한”을 역사적으로 우리의 고유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한”을 우리의 철학적, 역사적으로 정체성을 밝히려는 노력은 최근에 와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멀리로는 다산으로부터, 가깝게는 주시경으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김상일, 1991).

한글학자 한갑수에 의하면, 우리말에 “하느니” 혹은 “하니”라는 형용사는 “많다”라는 뜻이 있으며, 이것이 관형사로 쓰일 경우에는 많은, 못(衆), 여러, 모든(諸)의 뜻으로, 접두사로 쓰일 경우에 “한”은 대(大), 정(正), 성(盛), 강(強)의 뜻으로, 그리고 관형사 “흔” 혹은 “한”만이 “하나”의 뜻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의 “한”을 시(時), 공(空), 질량의 개념으로 볼때, 공간개념으로서의 “한”은 넓다는 뜻과 가운데의 양면의 뜻을 가지고 있다.

즉 “한길”의 “한”은 넓다는 뜻이고, “한가운데”의 “한”은 중심 혹은 가운데란 뜻이다. 전자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개념이라면, 후자는 가운데로 모여드는 개념이다. 시간적인 “한”개념은 시간전체를 뜻할때와 시간의 어느 중심점을 뜻할때의 양쪽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즉 “한겨울”은 겨울전부(all the winter)를 의미하기도 한다. 질량개념으로 볼때에는 “한”은 서로 상반된 두 개념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 즉 양 개념으로서의 “한”은 쉽게 하나(一)를 의미하나, 그러나 동시에 “한”은 많은(多)을 뜻한다. 질량개념으로서의 “한갓”은 최소한의 개념이고, “한껏”은 최대한의 개념이다.(김상일 : 1988). “한”의 뜻을 다시 5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면, 첫째로 하나(一, one)의 의미(예 : 하루, 하나, 한개, 흠이 불), 둘째로 여러(多, many)의 의미 (예 : 하도(많이도), 허구헌날(많고도 많은날), 여름하니(열매 많으니)), 셋째로 가운데(中, middle)의 의미(예 : 한가위, 한밤, 한겨울), 넷째로 같은(同, same) 의미(예 : 한가지, 한테(같은데)), 다섯째로 어떤(或, about) 의미(예 : 한사람, 한십분, 한때, 한동안)가 있다(김상일 : 1988, 1991) one과 many는 “일(一)”과 “다(多)”의 문제로 불교, 유교, 서양철학에서 풀려고 하는 숙원의 문제이다. 서양철학에서는 보편(universal)과 특수(particular), 초월(transcendental)과 내재(Immanence),

신(God)과 세계(world) 문제가 항상 “one”과 “many”의 문제로 나타났다. one /many에서 서양철학은 Both /and나 Either /or 두 관계로 밖에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동양에서는 neither /nor 논리로 발전하여 one /many가 즉, 일(一)과 다(多)가 같다(same) 혹은 양쪽을 다 부정한 “가운데(middle)”의 의미로 발전되었다. 공자, 노자는 중용(middle)을 최고의 가치를 삼았는데, 중용에서는 성(誠)을 통해 middle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사상은 가운데(middle)마저 타파하고, “어떤(about)”을 발견하였다. “어떤(about)”은 현대 물리학의 불확정성의 이론(theory of uncertainty)의 근원이 된다. “어떤”은 부정(不定), 즉 무엇이든 확정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한국인의 대화중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현대 물리학의 불확정성의 이론과 연결된다. 불확정성의 이론이란 과거의 회의주의나 불가지론과는 다른 이론으로서 객관적인 존재나 주체의 실체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관찰은 주관, 객관의 상보적 관계에서만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관찰자 주관에 따라 관찰의 결과가 불확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이론이다(김상일, 1986). 이와같이 한사상은 이 다섯개의 사전적 의미를 연관시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한”개념은 야누스와 같이 상반되는 의미의 양면 얼굴을 가진 어휘로서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만도 무려 22가지나 된다고 안호상씨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김상일, 1988)

① 크다(大) ② 동이다(東) ③ 밝다(明, 鮮) ④ 하나다(單一, 唯一) ⑤ 통일하다(統一) ⑥ 중, 무(大衆) ⑦ 오래(久) 참음 ⑧ 일체, 전체 ⑨ 처음(始初) ⑩ 한나라, 한씨(韓民族) ⑪ 회다(白) ⑫ 바르다(正) ⑬ 높다(高) ⑭ 같다(同) ⑮ 많다(多) ⑯ 하늘(天) ⑰ 길다(長) ⑱ 으뜸이다(天) ⑲ 위다(上) ⑳ 임금(王) ㉑ 온전하다(全) ㉒ 포용하다(包容). 이러한 “한”의 어원을 좀더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체계화한 사람은 육당 최남선으로, 그의 “불합 문화론”을 손꼽을 수 있다. 육당은 “푸른하늘”을 의미하는 “Tengri”에서 출발하여 불사상 혹은 불합 문화론을 전개하고 있다. “불”은 몽고어의 “Tengri”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밝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육당은 동아시아 일대의 산천이름, 사람이름 등에 白(불) 자가 들어가는 말이 많다고 했다. 말은 역사와 함께 자라나간다. “한”의 개념속에 이와같이 많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곧 이말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역사속에서 살아 움직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은 중국어의 “도(道)”와 같이 한국인과 한국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목록어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라 할 수 있다(김상일, 1991).

## 2. 한사상의 범위

한국철학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철학적 사상을 말한다. 한국철학이란 한국사람에 의해 새로 창출된 독자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으로부터 유입된 철학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한 철학이론도 포함하고 있다(이명현, 1987). 즉 한사상이란 한국의 역사와 전통속에서 이루어진 모든사상과 서양이나 중국 그리고 인도에서 유입된 모든사상들이 비판적인 논의를 통해 수용된 전반적인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 김상일(1991)은 한사상을 크게 세부류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첫째로, 그 기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원형적(原形的, prototype)인 것과 둘째로,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속에서 이루어진 조형적(造形的, archetype)인 것과 셋째로, 서양철학과 같이 이질적인 타문화권으로부터 유입되어 비판적 논의를 거쳐 한국적인 것이 된 변형적(變形的, transtype)인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두번째 조형적인 것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언급되어온 불교나 유교, 그리고 민족종교같은 한국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원형적인 것은 무교로서 문헌적으로 그 근거와 근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우나, 한국역사속에서 면면히 흘러내려 오면서,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 것들 속에서 변혁의 매개체적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원형적인 것은 비록 현재 그 문헌적 근거를 밝히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조형적인 것과 변형적인 것들속에 뚜렷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규명하기가 차라리 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변형적인 것은 이질적인 타문화권에서 유입되어 한국적인 것이된 기독교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부류의 사상을 모두 한사상의 범위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 세부류들의 사상들은 나중것이 먼저것을 포함하면서 한단계씩 넘으면서 한국철학 사상을 형성해 왔던 것이다. 원형은 조형속에, 조형은 변형속에 불멸(不滅)한다. 사상은 축적되면서 변혁 되어간다. 그러면서 먼후일에는 조형적인 것이 원형적인 것이 되고 변형적인 것이 조형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상일, 1991).

그러나 한사상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논하는데 특히 고유성을 찾기위한 관점을 흐려놓은 것이 유교, 불교, 기독교이다. 유교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저술할때 한

국의 역사를 기자조선에서부터 기술하므로서 기자이전의 역사를 말살하려 했던 것이다. 불교는 승일연이 한국 역사의 상한점을 단군에서부터 출발시키기는 하였으나 한국 역사를 있는 그대로가 아닌 불교에 의해 채색되게 기술하였다. 기독교는 유대민족의 역사를 한국민족의 역사로 옮겨놓아, 즉 한민족의 조상을 유대인의 조상으로 바뀌어 놓게 되어 한국 기독교인이 한국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데 과오를 범하게 하므로써 한사상의 본질을 퇴색 시키고 흐리게 하였다(김상일, 1986). 그러므로 한사상의 본질을 잘 알기위해 원형적인 것을 잘 연구해야 한다고 김상일은 언급하고 있다(김상일, 1991). 한사상의 원형적인 것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라 하면 단군설화와 최치원의 난랑비서문이다. 단군설화는 한사상의 연원(淵源)이 되며, 홍익인간·재세이화(弘益人間, 在世理化)같은 철학적 윤리적 요소가 있으면서, 또 다른 면으로 민간신앙 속에서의 정령숭배와 기복주술 신앙요소가 있다(김상일, 1986). 이을호(1986)는 한사상의 근원적인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단군설화를 통해 한사상을 “대수적(對數的) 한사상”과 “전수적(全數的) 한사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대수적인 한”은 환인과 환웅의 부자관계, 신웅과 웅녀의 부부관계를 통한 평등, 호혜, 추서(推恕)의 윤리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부자자효(父慈子孝)로서 쌍무적 윤리로 부자의 윤리구조를 설명할때 중국에서는 자효(子孝)에 치중했다면, 한민족에서는 부자(父慈)에 더욱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중국에서는 상향적 충효열(忠孝烈)을 강조한 반면, 단군신화에서는 하향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어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란 말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을호, 1986; 최민홍, 1988). “전수적인 한”은 다수의 총체로서의 “한”으로서, “한”의 귀일사상을 말하며, “많은”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이라 했으며, “한”의 일원론은 일원론이 아니라 이원론적 일원론이요, 다원론적 일원론이라 할 수 있다(이을호, 1986).

최치원의 난랑비서문에서는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어 이를 풍류라고 하였는데 풍류사상은 고대 한인들이 바람과 같이 매임이 없이 자유로이 흐르면서 풍류, 산천, 자연에 노닐며 밝은 뜻과 맑은 마음으로 인생을 슬기롭게 사는 것이 인생관이요, 우주관이라 할 수 있다. 이항녕(1972)에 의하면 화랑도의 풍류사상에는 세가지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자연숭배사상이다. 화랑도는 불교나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고유신앙인데, 그 신앙은 범신적(凡神

的)인 것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교류를 인정하고 인간의 길흉(吉凶)이 자연에 관계있다고 생각한 샤머니즘(shamanism)의 형태이다. 둘째, 풍류사상으로 신라의 화랑들은 특히 가무·음악을 좋아하였으나, 이 가무·음악은 본래 자연을 칭송하는 수단으로 쓰여졌으나 그것이 일상생활화하여 생활에 혜택을 가져오게 되었다. 셋째, 충·효 사상으로 애국적 정열을 갖고 있었다. 화랑은 풍류는 즐겼으나 문약(文弱)하지 않고 일단 유사 시에는 조국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문무(文武)겸전의 호국사상이다. 이와같이 풍류도는 한사상의 원형으로 유교의 사상과 노자 및 불교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특하고 고유한 사상이다. 이것은 온나라에 펼쳐져 있어서 모든생명을 접촉·교화시킴으로서 집안에 들어가며 효도를 하고 나라에 충성하며(유교), 억지일을 하지 않고 말보다 실행을 앞세우는 것(도교)과 일체 나쁜일을 하지않고 착한일을 만들어 행하는(불교) 가르침 3교가 포함된 것이 풍류도(風流道)이다. 이 풍류도는 화랑도로 전승되었고, 고려조까지 맥이 이어져 있으니, 한민족의 의식과 생활의 밑바탕이 되었다. 한사상은 결국 한국인의 독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세계의 사상을 반영한 일반성을 겸비했다고 볼 수 있다.

### 3. 한사상의 본질

한사상은 고유의 한사상에 외래의 사상이 접목되면서 발전되어 갔으며, 외래의 사상일지라도 본래의 성질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땅에서 한사상에 흡수되어 체계화되었다. 한의 사상은 한국고유철학을 형성하는데 중심이 되며, 그 이유는 존재의 원리를 크고 높은데서 발견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인식론이나 가치론의 근본을 “한”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하나를 근본으로 하는 위정자는 법치주의를 버리고, 덕치주의로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였다(최민홍, 1970). 하나의 사상이 철학이 되려고 함에는 세가지 의미의 구조상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하였는데(우종모, 1986), 최민홍은 이에 맞추어 한사상을 세가지 의미의 구조상 체계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존재론은 우주만물의 근본적 실재가 무엇이나 하는것을 밝히는 것이고, 인식론은 어떠한 것이 진리이고 또 어떠한 것이 거짓이나 하는것을 밝히는 것이고, 끝으로 가치론은 선과 악에 대한 가치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이나 하는 것이다(최민홍, 1988). 이러한 존재론·인식론·가치론을 “한”에서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다.

1) 한의 존재론

“한”의 존재론은 우주만물의 근본이 그 수에 있어서 둘이상이 아니고 하나라고 한다. 고로 존재의 양적 입장에서 보면 일원론이라 할 수 있다. 우주만물의 근원이 크고 높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며, “한”의 일원론은 모든 만물의 근본인 하늘은 수에 있어서 하나(一)이고, 양에 있어서는 최대무한(多)이다. 하늘은 공간적·시간적으로 한정 없는 것이다.

하늘을 모든만물의 근본으로 본 이유는 농경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며 하늘과 농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최민홍, 1988).

또 하늘은 음(陰)과 양(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개의 힘에 의해 삼라만상은 발생, 성장, 소멸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음과 양을 가지고 있는 하늘은 곧 모든 만물의 유일한 궁극적인 근본실재가 된다. 현실세계의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는것이 현실세계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하늘에 있다고 본다. 일음(一陰)과 일양(一陽)은 본래 두개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다. 존재의 작용상으로는 음과 양, 두개의 물건을 하나의 통일체로 본다. 하나의 하늘은 체(體)를 의미하며, 음양은 하나의 작용 즉, 용(用)을 의미한다. 즉, 자연의 운동변화를 자연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두개의 음양과정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하늘은 “체”가 되고, 운동변화를 하는 만물은 “용”이 된다(최민홍, 1987).

또 한국 고대철학에 있어서 동쪽은 모든생명의 원천으로 보면서 모든 만물의 주재자로 보았다. 이것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동방의 숭배사상이 되고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동방의 존재관이 된다. 동방의 존재관은 “한”의 존재관과 같은 의미가 되는데, 그 이유는 양자가 자연철학시대를 배경으로 한 존재론이기 때문이다(최민홍, 1988).

2) 한의 인식론

인식론은 상대적이다. 대립적인 사물의 진리를 상대적인 입장에서 설명하였다. 전체적인 하나라고 본다면 양극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진리를 구하는데 전체적인 큰 하나라는 입장에서 보면 양극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있고 없는 것을 불이성(不二性)의 입장에서 보는것이 한의 인식론의 입장이다. 고대 한인들의 불이성 진리관을 잘 나타내준 것이 그들의 생사관이다. 사람이 죽고 사는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죽는다고 하여 아주 죽은것으로 보지 않고, 현세의 삶은 내세에 가서 계속된다고 보았다. 죽은 사람이 산사람과 서로 통

한다는 불이성 생사관 관념아래에서 조상숭배의 바탕을 이룬다는 것은 멀리 삼한시대 부터이다.

모든만물의 원리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면을 다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한”의 인식론의 특색이다. 또 “한”의 인식론은 신비주의를 내포하고 있다. 인식의 논법은 3가지가 있는데, 경험론, 합리론, 신비주의가 있다. 경험론은 인식의 기원을 경험에 있다고 하고, 합리론은 인식의 기원이 사유에 있다고 하고, 신비주의는 인식의 기원이 신비적 직관에 있는데, 이것을 직관주의라고 한다. 지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된 진리를 아는 것으로 최고의 진리를 아는 것은 신비적인 직관에 의해서이다(최민홍, 1970, 1988). “한”의 진리는 경험이나 사유를 초월한 “하나”에서 사물의 본질을 신비적 직관을 통해 인식해야 한다. 즉 “한”은 단순한 일원론이 아니라 이이일적(二而一的) 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이를 우리의 선인들이 현묘지도(玄妙之道)라 일컬었다(최민홍, 1988).

3) 한의 가치론

한사상의 가치관은 인간행동의 가치기준을 큰 하나에 두었다. 자기의 행동이 항상 전체적인 하나에결결 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한사상의 가치관은 인성이나 인간행동에서 보는 선과 악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다. 한사상은 선악에 대한 가치기준을 커다란 전체적인 하나에 둔다. 그러므로 선의 개념과 악의 개념을 이분법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큰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양립적인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성품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성품이 변화를 하게되면 거기에 따라서 선도 악도 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그래서 한사상은 선악의 가치기준을 고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사상은 선의 가치 기준을 움직이지 않는 단일성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하는 전체성에 둔다. 이러한 사상은 하나로 돌아가는 일체성을 내포하는 귀일논리이다. 한사상에서는 인성이 선이나 악이나에 대하여 어느 한쪽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한사상은 성악설과 성선설을 하나로 포괄할 수 있는 사상에 의하여 큰 하나로 조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사상의 선악에 대한 가치론이다. 인성론에 대한 선과 악의 양설은 하나로 지양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사상의 주장이다.

그 다음 한사상은 사람의 행동상에서 나타나는 선과 악의 문제를 대립적인 별개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의 행동상에 나타나는 선과 악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의 사상은 행동상의 선과 악의 문제로 나누어서 보지 않고 전체적인 큰 하나로 본다.

한사상은 인간행동에서 보는 선과 악에 대한 가치기준을 전체와 개체로 나누어 해명한다. 즉 일반적으로 전체를 위주로 하는 행동은 선이 되고 반대로 하나의 개체를 위주로 하는 행동은 악이 된다고 본다. 진정한 삶이란 자기 행동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전체적인 정신이 지배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행동의 가치기준은 선타후아(先他後我)의 미덕이며 순수한 인간애의 정신, 즉 이타주의적 미덕과 평화와 자유를 애호하는 정신은 창조적 인도주의적 기본이다(최민홍, 1987). 특히 이것은 대상자를 돌봐야 하는 간호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한사상의 선악관은 개체의식 보다 전체의식이 일차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자기라고 하는 개체는 전체에 대한 하나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임원환자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환자는 가족의 한구성원이므로 각 구성원이 별개로 존재하기보다는 비록 임원실에서라도 곁에 있기를 원하지 않나 싶다. 이러한 구성관계는 개체는 전체를 떠나서 살수 없고, 즉 인간은 고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물이라 하는것은 한사상에서도 같은 것이다. 인간이 공동존재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고 하면 개체와 전체는 양립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일 것이다. 이같은 원리에 의하면, 개체의 선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악의 경우에도 개체의 악이 그 자체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악으로 연결이 된다. 전체와 개체가 큰 하나로 연결이 되는 개념이라면 인간행동에서 보는 선악관도 역시 두개로 나눌 수 없는 일(一)이라고 생각 하는 것이 한사상의 가치관에 대한 중심 내용이다(최민홍, 1987).

한의 윤리사상의 정신은 평화와 자유를 애호한다. 이것은 겸애심에서 나오고 개인, 우월감, 차별심을 초월한다. 한의 가치관은 정인데, 인의사상(仁義思想), 사양심의 원리가 여기에 속한다. 고대 한인들은 아름다운 풍토 속에서 자연 경향적인 순진한 생활을 해왔으며, 인간미와 따뜻한 인정을 가지고 믿음직한 미덕의 윤리사상을 갖고 있다. 결백한 마음씨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윤리생활의 하나의 미덕으로 생각하였으며, 엄격한 가족제도 안에서 효의 생활을 하는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강신표, 1989). 고대 한인들의 자연관은 자연은 신성한 삶의

터전이며 가혹한 시련을 주는 가해자이기도 하며, 인간은 자연속에 살다가 자연으로 가는 밀접한 관계 즉, 자연과 인간이 한가지로 동화(同化)되어 버리는 관계를 이룩했고, 따라서 자연은 생활의 기반이었다.

#### 4. 한사상의 원리

##### 1) 상대성의 원리

“한”은 한없이 크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포괄하고 있다. 이같은 “한”의 안에 있는 여러가지 만물들은 전부 상대적인 관계로 존재하고 있다. 극과 극이 형성되지 않음으로 대립이 없고, 다같이 큰 하나로 돌아가는 귀일논리(歸一論理)를 가졌고, 이러한 논리에 근거를 두고 한사상은 인생관이나 세계관의 진리를 상대성 원리에서 구하였다. 한민족은 상대성 원리가 없는 진리관을 기대하지 않았고, 상대성 원리에 의한 상대성 인생관에는 평화공존의 사상이 깃들어 있다(최민홍, 1986, 1991).

##### 2) 협동성의 원리

한사상에 내재되어 있는 협동성 원리는 사람의 삶을 협동으로 본다. “한”은 전체적인 큰 하나라는 의미를 그 자체안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 토대를 두고 인간문제에 있어서 개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인간관계를 전일적(全一的) 존재로 본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때 사회적 관계속에 던져지며, 다른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간다. 이러한 인간의 삶은 다른 사람과 우호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는 것이지 경쟁적인 고립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최민홍, 1986, 1991). “한”사상에 뿌리를 박은 협동심을 가진 한민족은 고난, 기쁨을 같이하여 오는동안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 상부상조하며 공생의 논리를 강조하였다. 그 예는 계, 품앗이, 두레, 동제, 향약 등이다(최민홍, 1986, 1991 ; 강신표, 1989).

##### 3) 통일성의 원리

“한”은 전체적 커다란 하나라는 측면에서 두개이상의 이질적인 개체나 의견은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일이 가능하다. 한이 말하는 통일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개체를 공존의 전체로 보는 다양성 의미의 통일이다. “천부경”의 대삼합(大三合)은 “한”은 셋으로 갈라지나 뿌리는 하나이며 본디의 “한”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와같이 통일성의 원리가 대삼합에서 나타난다. 개체 그대로는 어떠한 작용도 할 수 없고 상대를 필요로 하게 된다. 통일성의 원리는 한민족의 정신생

활을 크게 지배하였다. 원효의 통불사상, 대각국사, 보조국사의 통불론, 조선조 말엽 소태산의 원불사상은 “한”사상의 통일성 합일 논리로 발전시킨 것이다. “한”사상의 통일사상은 불교 뿐만 아니라 여러분야에 스며들어 한민족의 정신생활을 일관해 왔다(최민홍, 1986).

#### 4) 조화성 원리

“한”은 말과 글자로 표현할 수 없이 크므로 모든 물체를 포괄하고 있다. 이안에 내포되어 있는 물체는 조화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에서 다양한 조화체를 보게 되며 조화의 원리에서 말하는 한민족의 인생관은 사람의 삶을 조화로 본다. 이같은 조화사상은 한민족의 경전에 깊이 뿌리 박고 있다. 즉 천부경, 삼일신고 등은 삼일원리나 조화성 원리에 의거하여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만 있고 셋이 없으면 이것은 그 쓰임이 없고, 셋만 있고 하나가 없으면 이것은 그 몸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는 셋의 몸이 되고, 셋은 하나의 쓰임이 된다”

三一관계는 한민족의 조화사상의 뿌리가 되었다. 한사상에서 일즉다(一卽多)이고 다즉일(多卽一)이라는 말을 한다. 이것은 사람이 단조롭게 사는 것 보다 다양하게 사는데 참된 의미가 있고, 한 사상의 조화성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옛날의 화랑도는 조화의 생활을 하였는데, 도의성, 정서성, 의지성의 조화생활을 하였다(최민홍, 1986, 1991).

#### 5) 평화성의 원리

한사상의 특색은 극과극의 양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양극적인 대립과 분열을 피하면서 일화(一和)를 전제로 하는 타협적 대화의 논리에서 평화정신을 볼 수 있다. 황룡사의 9층탑, 불국사, 석굴암은 평화애호정신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평화자유의 기원을 상징하였다. 나라의 향가는 국민전반에 걸친 소박한 노래이며, 평화낭가락으로 인애심의 평화스러운 정치를 기원하였다(최민홍, 1986).

#### 6) 자발성 원리

“한”이상 더 큰 것은 없다. 그래서 “한”은 동작을 할 때 어떤 다른 물건의 영향을 받는 일이 없이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 자발성의 원리안에는 처음도 끝도 없는 무한성과 또다른 물건과 비교되지 않는 독자성이 내포된다. 삼일신고에서 일기(一氣)는 자기 스스로 동작을 하면서 가르침을 만들어서 삼화(三化)의

“신”을 다스린다. 삼화의 “신”이라 함은 천일(天一), 지일(地一), 태일(太一)의 “신”이다. 이 “신”은 즉 기(氣)이고 기는 즉 빈것이고 빈것은 일(一)이다. 일이 바로 “한”인데, “한”은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활동이 가능한 존재이다(최민홍, 1986).

지금까지 한민족의 한사상을 고찰해 보았다. 한사상은 우주만물의 근본이 하나이며, 하늘에 근본을 두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동방의 숭배사상을 갖고 있다. 인식론에서는 사물의 진리를 상대적인 입장에서 설명하였고 양극이 없는 불이성 진리관을 나타내 주며, 이를 바탕으로 조상숭배가 이루어 졌고, 참된 진리와 최고의 진리를 아는 것은 신비적인 직관에 의해서 하고 하였다. 한의 가치관은 인간행동의 가치기준을 큰 하나에 두면서 고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아 하나로 돌아가는 귀일논리에 두었다. 한의 윤리사상은 정, 겸애심, 인의사상, 사양심의 원리, 홍익인간의 이타주의적 미덕, 평화와 자유를 애호하는 정신, 쌍무적인 호혜윤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

한사상을 근거로 하여 간호를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한국간호를 위한 한 사상의 고유성을 찾으려고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현대 간호와 한국적 간호의 유기적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한사상을 간호에 접목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B. 한사상과 간호

한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귀일논리(歸一論理)이다. 즉 전체적인 큰 하나로 돌아감으로써 극과 극이 형성되지 않고 대립이 없다는 것이다(최민홍, 1986).

인간관계는 전일적(全一的)이며 개체와 개체는 분리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로 합쳐져서 집단을 형성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 사회적 관계속에 던져지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김상일, 1991).

이러한 한사상의 귀일논리에 입각한 인간관은 간호의 개방체계(open system)로서의 인간관에 잘 접목이 되어진다.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인간으로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는 통합된 전체로서 개방성을 지닌 체계이다. 즉 인간 존재는 홀로 독립해 존재할 수 없으며 분절된 개별적 존재로 나눌 수 없는 역동적 과정속에서 본질적으로 상호 연관된다.

한 사상은 개체에 대한 관계를 일(一)과 다(多)로 설명한다. 즉 일즉다(一卽多), 다즉일(多卽一)의 관계를

갖는 한은 하나만 있고 셋이 없으면 이것은 그 쓰임이 없고 셋만 있고 하나가 없으면 이것은 그 몸이 없는 것이다. 즉 하나가 많음이 되고 많음이 하나가 되는 일(一)과 다(多)의 조화를 뜻한다(김상일, 1986).

한 사상은 전체론적 입장에서 인간을 지각하며 기계론적인 부분의 집합으로서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연관성에서 부분을 연관시킨다. 모든 대립적인 사물의 진리를 상대적인 입장에서 해명함으로써 전체적인 “하나”로 볼때 양극은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상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뿌리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인식하며 상대적인 것도 전체적인 “한”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참된 것이 된다(이을호, 1986). 이처럼 한 사상은 간호의 Holism을 반영하며 전체가 부분의 집합체를 초월했다고 해서 개개의 부분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동시에 전체에도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한사상은 서구의 논리실증주의적 분석철학에서 다시 전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과정철학적 접근의 근원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사상의 간호가 Holism에만 입각해서 개인의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준다.

한 사상의 특색은 사물의 극과 극의 양립을 허용하지 않고 통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중(中)은 그저 일자(一者)가 아니라 二而一인 것이다. 음양이 귀일(歸一)한 것이 중(中)이고 정·반(正反)이 합(合)할때 중(中)이 이루어진다. 이를 조화, 균형이라고 하며 창조적 생명도 그러한 경지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균형이 깨짐으로서 일자(一者)가 될때 이것을 “죽음”이라 한다(이을호, 1986).

이는 모든것을 긍정하고 포괄하고 종합하며 조화, 일치시키는 한의 통일성, 조화성을 나타낸다. 한 사상의 맥락에서 볼때 신체는 건강함과 병됨이 계속 번갈아 교대되고 있는 하나의 장이다. 즉 건강함과 병됨이 불가분리적인 하나의 전체이다. 공간적 시간적으로 몸이 건강 혹은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건강 혹은 질병이다. 곧 함께 더불어된 전체성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과정 자체가 곧 병의 원인이 된다(김상일, 1991).

이는 wellness-illness 연속선 상에서 다양한 외부환경과의 관계성 속에서 건강, 질병개념을 다루는 현대간호와 쉽게 접목된다. Rogers는 건강과 질병은 이원화된 것이 아니라 분리되지 않는 연속적이고 동등한 연속체 상의 일부분이며 생의 과정동안에 나타나는 것이며(Rogers, 1980), Parse(1987)는 건강은 질병의 부재나

well-being state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고 인간과 환경의 에너지 교환에 의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인간에 의해 감지된 경험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외래 사상에 오염되지 않은 한 민족의 고유한 철학을 나타내는 한 사상에는 현대간호가 지향하고 있는 간호의 개념적 틀을 이미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사상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한국인을 위한 간호이론 개발에 충분조건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현대의 간호추세와 맥을 같이 하며 결국 부분이 전체를 반영 할 수 있는 특수성과 전체적인 시각을 동시에 중요시 하는 보편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한편 간호는 인간 과학으로서 과학철학의 흐름과 무관할 수 없어서 19C중반 이전 까지만 해도 예술로만 표현되었던 간호가 논리실증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과학성을 강조하면서 간호과학 으로서의 발판을 다져왔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측면 뿐이 아닌 인간의식의 전개(Newman, 1986)라는 관점이 관심의 초점이 되면서 과학철학의 역사주의, 진화론적 관념주의, 변증법적 사고 등의 영향을 받아 과학적인 것은 물론 신비적, 도덕적인 비인과성(non causality)의 중요성이 재인식 되고있다(김문실 외, 1990). 이러한 간호의 추세와 관련하여 한 사상을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의 의미론을 보면 보통명사로서 일(一), 다(多), 중(中), 동(同), 흑(慥)과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一과 多는 존재론적인 변수이고 中과 同은 一과 多를 관계시키는 관계어가 된다. 즉 一과 多를 中과 同으로 관계시킬때 나타나는 결과가 흑(慥)이다. 이것은 영어의 “about” 혹은 “비결정성”과 같은 말이다. 일(一)과 다(多)를 ‘갈게’ 또는 그 ‘가운데’로 조화시킬 때 나타나는 결과는 비결정적 혹은 불확실성이라는 것이다(김상일, 1986). 이는 한사상의 비시원성(nonorientability)으로도 설명이 되는데 비시원성은 시원적(orientable)이라는 말의 부정적인 개념으로 시공간의 어느 원점에서 생각을 출발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즉 너와 나는 주관, 객관의 관계에 따라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이 흑(慥)의 개념이다.

이러한 사상을 지니고 있는 한국인 환자는 표현하는 대화의 내용이 논리정연, 구체적, 결정적인 분명한 표현보다는 불확실한 듯 중간의 입장에서 애매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셋이나 넷중 하나를 의미하는 “서너개” 다섯과 여섯중 어느 하나를 의미하는 “대여섯개” 등 중간적인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것은 간호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환자의 행동이나 언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 신중해야 할 뿐 아니라 환

자와 간호사가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일체될 때 의미와 약이 가능하다고 본다.

간호실무는 대상자 개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할 뿐 아니라 간호를 수행하는 각 간호사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간호사는 어떤 형태의 간호가 대상자에게 중요한지를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또한 그 결정에 따라 사람이나 기계를 움직이게 되므로 간호사가 내리는 결정들은 심미적인 창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Peplau, 1988).

그러므로 “혹” 개념을 간호에 적용하면 간호사와 환자의 주관, 객관의 관계에 따라 수시각각 상황에 따라 간호사와 환자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간호의 예술성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진다.

Rogers의 평형역동의 원리는 상호호호성, 나선성, 공명성의 세가지 원리로 인간 에너지 장과 전체 환경간 그리고 인간 에너지 장내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들의 역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역동성에서 간호의 예술성이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간호의 “예술적 측면”(the art of nursing)은 인간 봉사에 있어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인 과학지식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Rogers, 1980).

Peplau(1988)은 간호의 예술성을 과정(process)으로서의 예술성, 매개체(medium)로서의 예술성, 산물(product)로서의 예술성으로 구분 하였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잠재력을 활성화시켜 스스로의 삶의 양식과 환경에 필수적인 요소를 유지하고 건강을 향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간호사가 매개체로서, 변화의 도구로서, 타인을 활성화 시키는 촉매로서 기능하려면 민감성, 직관, 상상력, 풍부한 기량, 다재다능함, 과감한 혁신등을 필요로 한다(peplau, 1988).

간호사 자신을 드러냄으로서 간호의 예술성은 표현되는데 눈이나 얼굴은 특히 부정이나 소망, 영감을 전달하며 가치관의 표현은 간호사의 말이나 몸짓에 새겨진다. 즉 각 간호사의 태도에는 독창성이나 고유성이 나타난다.

타인의 안녕에 대한 헌신, 관념, 가치, 통합성의 독특한 섞임은 간호사의 자기 표현과 대상자에 대한 반응에 표현된다. 그러므로 간호의 예술성은 항상 다원론적이며 행동에 있어서 간호사의 다양성과 다채로움으로 특징지어지며 한 상황에서 부터 다른 상황에 복제되지 않는다(Peplau, 1988).

간호사가 다른이의 느낌에 참여하고 같이 경험하는

능력인 공감(empathy)은 미학적인 간호의 예술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양식이다(Carper, 1978). 공감이란 간호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 깊게 듣고 이를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다시 말로 표현하는 언어적 행위를 뜻한다. 간호사가 자아를 치료적으로 활용할 때 간호사는 객체/대상으로서 환자를 보지않고 두사람 사이의 개인적 관계를 실현하려고 애쓴다.

진실한 대인관계는 각 개인은 고정된 총체가 아니라 항상 ‘되어가는 과정(process of becoming)’에 참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창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carper, 1978). 이렇게 간호의 예술성은 한사상의 중심개념인 비 시원성(nonorientality), 혹(惑)과 쉽게 접목이 된다. 분명한 언어적 표현을 삼가하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고려할 때 언어적 표현에 따른 경청을 중요시 하고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공감(empathy)은 환자와 간호사와의 관계형성을 돕는다. 즉 한 사상에 입각한 간호의 예술성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를 위한 나의 관계, 나를 위한 상대의 관계로서 의식을 정립하고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않고 상대성을 초월한 전체성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관계를 맺을때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개인의 주체성, 자주성을 둔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체성과 기능을 인정함으로써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여 ‘되어 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배타와 독선을 용납하지 않고 간호사와 환자의 평등,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전체적인 큰 하나를 이루는 한 사상의 근본이요, 간호의 예술성을 성취해 가는 길이 될 것이다.

한 사상을 통해 볼때 한국인은 이미 인본주의적 간호의 예술성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학성만을 강조해서 간호의 예술적 측면을 등한시 해온 것은 사실이나 한국인에 맞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직관, 공감, 온정, 민감성, 상상력을 동원한 환자와 간호사와의 관계유지를 통한 간호의 예술성은 지향될 필요가 있다.

한 사상의 가치관을 볼때 인간행동의 가치 기준을 ‘큰 하나’에 두었고 자신의 행동이 항상 ‘전체적인 하나’에 직결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최민홍, 1986). 한사상은 인간 행동에서 보는 선과 악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전체와 개체로 나누어 해명한다. 즉 일반적으로 전체를 위주로 하는 행동은 선이 되고 반대로 개체를 위주로 하는 행동은 악이 된다고 본다. ‘한’은 사물을 총체적으로 보며 인

류의 보편가치를 지향하는 전체성을 갖음으로서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좇는 미덕을 갖고 있다. 현실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앞세운다(김상일 외, 1990). 따라서 나와 남은 결코 둘이 아니라 큰 하나의 삶이라고 하는 자타일여(自他一如)의 큰 세계관을 갖고 있다. 상대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개체성을 인정 하면서 전체적인 큰 하나로 통일시켜 가는 것이다. 즉 개체성과 기능을 인정 함으로서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여 사회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의 윤리사상의 정신은 겸애심에서 나오며 이것은 개인, 우월감, 차별심을 초월하여 이타주의적 미덕, 평화와 자유 애호정신을 갖는다. 또한 중국의 상하적인 윤리와는 달리 평등, 호혜, 추서(推恕) 윤리개념으로 대표 되는 쌍무적 호혜윤리, 또는 수평윤리를 나타낸다(이을호, 1986). 요즈음 비 윤리적인 태도로 지적되는 간호사의 태도로 책임전가, 환자비난, 무성의, 불성실, 무시, 기만, 의무 불이행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심하게 “간호의 부재”라고 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인간호는 간호과학으로서의 지식을 토대로 인간에게 베풀어지는 행위인 동시에 기술이며 예술로서, 인격적이고 포괄적인 간호를 수행하는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사업조직의 한 필수분야로 존재한다. 간호과학이 간호 실천행위를 옮겨주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학적 이론이나 기술만이 아닌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관계되는 철학과 윤리로 이루어지는 간호관이 간호사에게 선행 되어야 한다. 결국 바람직한 간호업무의 수행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인간에 대한 겸애심을 가지고 무한대의 봉사를 자발적으로 한다는 사회정의적 간호철학이 요구되어진다. 나 자신만의 개체를 위주로 하는 행동에서 벗어나 가치관을 전체적인 ‘큰 하나’에 우위를 줌으로서 타인을 사랑하는 인의(仁義) 사상, 홍익인간 정신을 간호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현대간호가 당면하고 있는 간호사의 비윤리성은 나의 이익보다는 남을 위하는 정신을 앞세우며 너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봄으로서 너(환자)와 나(간호사)를 초월하여 차별심이나 분별심을 가짐이 없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한의 대아(大我)정신을 실천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긍정하고 포괄하여 종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통일성을 이룸으로서 보다 ‘큰 하나’인 질적간호업무수행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와 간호사는 결코 둘이 아니라 큰 하나의 삶이라

고 하는 보다 큰 자타일여(自他一如)의 세계관을 지향하고 환자의 개체성, 기능을 존중하고 helper로서 helpee에게 공감, 온정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때 보다 궁극적인 간호 전문직 으로서의 사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결 론

지금까지 한국인의 고유한 철학적 사상인 한사상을 고찰했고 한국적 간호이론의 개발 측면에서 간호와의 관련성도 생각해 보았다.

한 사상은 외래 사상이 들어오기 전에 한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 사상으로 한국인의 가치, 신념, 행동을 이끄는 한국 고유철학을 형성하는데 중심이 되었다.

존재의 원리를 크고 높은데서 발견하려고 하였고 아울러 인식론이나 가치론의 근본을 “한”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한”은 한없이 크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포괄하고 있으며 여러 만물들은 그안에 전부 상대적인 관계로 존재하고 조화와 통일을 유지한다. 극과 극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대립이 없고 큰 하나로 돌아가는 귀일논리(歸一論理)는 한 사상의 핵심을 이룬다.

한 사상과 간호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귀일논리는 현대의 간호가 지향하는 Holism에 쉽게 접목이 되며 간호가 Holism에만 집착하여 개인의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한 사상은 전체적인 뿌리에서 사물을 관찰, 인식하며 상대적인 것도 전체적인 “한”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한 사상의 혹(惑)개념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인은 간호의 단순한 기술적인 간호보다는 간호의 예술적인 측면 즉 대인관계나 상황에 따른 간호사의 민감성, 직관, 독창성의 발휘에 더 큰 가치를 둬 줄 수 있었다. 과학성만을 추구하는 간호실무에서 소홀히 다루어 질 수 있는 간호의 예술성 측면이 더욱 강화되고 지향될 필요가 있으며 한사상의 홍익인간 정신, 대아정신, 쌍무적 호혜 평등원리는 현대 간호가 직면하고 있는 간호의 비윤리성에 대한 반성적인 통찰을 제공하며 간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사상의 개념들은 한국인을 위한 간호이론개발의 이론적 토대로서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한국인의 고유한 사상인 한사상을 간호에 적용하는 작업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강신표, 간호학의 정립과 한국 전통 문화, 간호대학 학술심포지움, 1989, 이화여자 대학교, 간호대학, 7-26.

김기태, 한사상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철학연구, 1984, 14.

김문실 외, 간호의 예술성과 과학성에 관한 고찰, 성인간호학회지, 1990, 2.

김문실, 촉진적 관계 차원의 구성요소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 1989, 1.

김상일, 한밭 문명론, 서울 : 지식산업사, 1988.

김상일, 한사상, 서울 : 은누리 국학총서, 1986.

김상일, 한의 생성론, 한국철학연구, 1988, 17.

김상일, 현대 물리학과 한국철학, 서울 : 고려원, 1991.

김상일, 한철학, 한국철학의 과정 신학적 해석, 서울 : 전망사, 1988.

김상일 외, 한사상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지식산업사, 1990.

신중섭 역, 쿤의 새로운 과학철학, 철학연구, 1984, 9.

우종모, 한사상과 철학, 한국철학연구, 1986, 15.

이기백, 민족과 역사, 서울 : 일조각, 1971.

이명현 외, 한국에서 철학하는 자세, 서울 : 집문당, 1987.

이을호, 한사상의 묘맥, 서울 : 사상사회연구소, 1986.

이항련, 한국의 풍토와 사상, 한국사상총서 I, 한국사상연구회, 1972.

최민홍, 한국경전과 한철학, 한국철학연구, 1988, 17.

최민홍, 한국철학, 서울 : 성문사, 1987.

최민홍, 한의 철학, 한국철학연구, 1970, 1.

최민홍, 한철학의 원리와 현대인의 인생관, 한국철학연구, 20.

Carper, B, fundamental ways of knowing in nursing, *A.N.S.*, 1978, Oct, 13-23.

Chinn, P.J. & Jacobs, M.K, *Theory and nursing : a Systematic Approach*, St. Louis : The mosby company, 1983.

Newman, *Health as expanding consciousness*, St. Louis

: The mosby Company, 1986.

Parse, R.R., *Nursing Science : Major Paradigms, Theories and Critiques*, Philadelphia : W.B. Saunders Company, 1987.

Peplau, *The art & Science of nursing, similarity, differences & relation*, *N.S.Q.*, 1988.

- Abstract -

Han - Thought and Nursing

Kim, Moon-Sil\* · Koh, Hyo-Jung\*\*

Kim, Ae-Kyoung\*\*\* · Lee, Ok-Ja\*\*\*\*

Han-Thought is a philosophy unique to the native to Korean culture.

From the point of view of etymological analysis, the word "Han" means "Large", "High" or "Whole" Ancient Korean people planted their philosophical roots deep in what has come to be known as Han-Though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an-Thought" for concepts and principles which may contribute to the building of a Korean nursing philosophy, ethic, paradigm, theory and eventually practice.

Ontologically, our ancient people attempted to learn what was most essential and meaningful in life Han-Thought embraces the thought of complete harmony with in wholeness.

Han encompasses everything in the universe.

A characteristic of Han-Thought is that all things relate to each other in harmonic balance, not in conflict.

The harmonious balance of all things excludes both disruption and confrontation, making all things into a large oneness.

Thus Han-Thought applied to Holism tradition-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e - Myung Univ.

\*\*\* Lecturer, Young - Dong College of Nursing.

\*\*\*\* Director, St. Joseph's Hospital, Puyo.

ally embraced by nursing philosophy.

The principles of Han–Thought emphasize the love of peace.

Extreme individualism and egoism are not allowed in Han–Thought.

Thus Han–Thought provide a humanistic and ethical foundation for nursing philosophy.

Han–Thought is a valuable philosophy for Korean nurses to explore toward the development of the discipline in Korea.